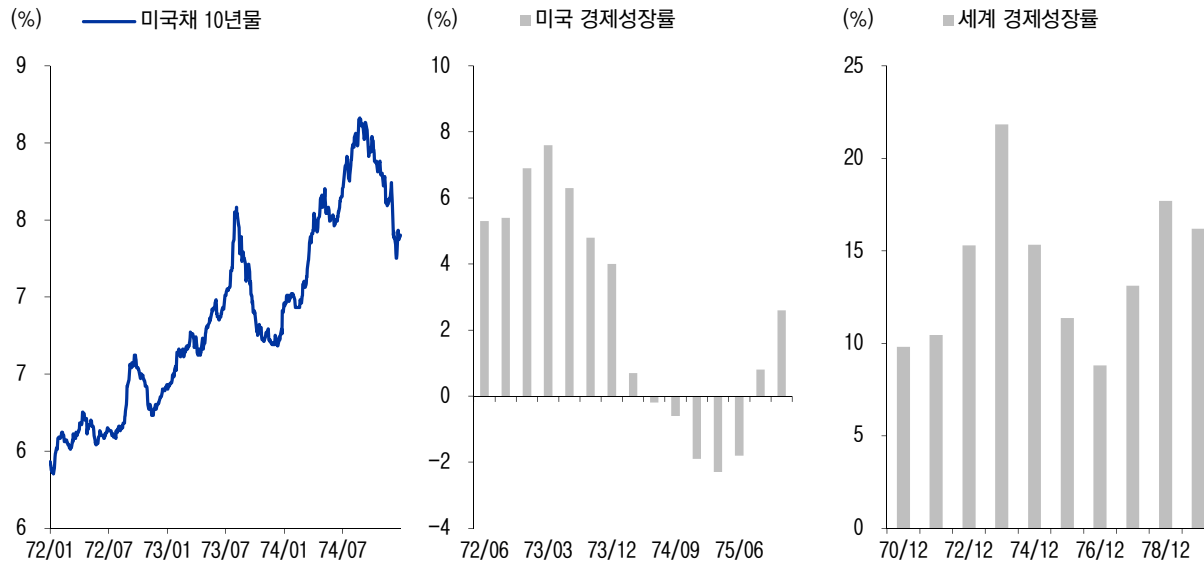


트럼프 탄핵, 글로벌 경제는 원하지 않았나?

Economist 최광혁
02. 3779-8448
Kh.choi@ebestsec.co.kr



Chart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all

- 1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의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로버트 무러를 임명. 언론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탄핵과 관련된 발언을 점차 확대 시키는 상황. 이미 특검이 임명된 상황이라면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보다는 탄핵의 진도가 빠를 수 있지만 1~2년 간의 시간을 예상할 필요는 있음. 더욱이 상원에서 탄핵이 통과된 적은 한 차례도 없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2 트럼프에 대한 경제정책이 자국 우선주의였다는 점에서 탄핵 시 우리나라 및 글로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전형적인 공화당 정책으로 판단 가능. 이미 대부분의 후보가 인프라 투자 및 적극적 재정에 동의한 만큼 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단기 변동성 확대, 장기는 오히려 긍정적

Fact1. 특검조사 → 하원 과반수 발의 → 상원 2/3 이상 찬성의 과정으로 기간이 길 수 밖에 없다

Fact2. 대통령 사퇴 시 현재의 부통령은 마이크 펜스 정권이 시작된다

Fact3. 트럼프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였다. 마이크 펜스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공화당 정책 집행자이다.

Fact4. 1865년 앤드루 존슨, 1974년 리처드 닉스, 1998년 빌 클린턴의 세 번의 탄핵에서 자진 사퇴를 제외하고 탄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Fact5. 경제적으로 인프라투자 및 재정확대는 미국 모든 후보의 의지였다

Fact6. 과거 워터게이트와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1973년 오일쇼크, 1973년 베트남 전쟁 패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act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글로벌 경제 전체와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았다

Fact8. 탄핵이 진행되던 1973년의 경제는 오히려 탄탄한 흐름을 보였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최광혁)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